

## 미주문학(08 봄호)의 시

정호승

(시인)

### 시는 인간을 성찰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과거의 감옥에 갇혀 괴로워할 때도 있고, 현재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봅시다’ 하고 늘 말씀하셨겠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풍요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들여다보더라도 성철 스님 말씀처럼 바로 들



시인. 1950년 대구 출생.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졸업.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당선돼 등단.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포옹』,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 다수.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수상.

여다보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긴 보되 이기가 바탕이 되어 들여다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을 성찰하는 가장 진실한 한 방법으로서 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거짓과 허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는 진실로 나아가는 성찰의 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봄호 『미주문학』에 실린 시들은 모두 43편이었습니다. ‘개나다 한인문인협회’ 편에 실린 시들까지 합치면 52편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호에 비해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잡지 전체에 비해 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호를 읽으며 새삼 ‘우리는 왜 시를 쓰는 것일까’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그 성찰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게 해주기도 하고 인간을 위안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태성은 시 「아기 잎새들의 일생」에서 ‘이른 봄/ 귀여운 아기 잎새들’을 보고 자신의 일생을 돌아봅니다. 아기 잎새들의 일생은 한 해뿐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면 아기 잎새들은 낙엽이 돼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시인은 아기 잎새의 ‘짧은 일생을 보며/ 몇 십 배 길다는/ 나의 일생도/ 부처님 손바닥 보듯/ 훤히 보이누나’라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아기 잎새와 인간의 일생은 서로 다른 시간의 질량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는 것을,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기 잎새의 삶과 죽음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용의 「동상」에서는 동상으로 세워진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풍자적 성찰이 돋보입니다. 그는 동상을 ‘존엄한 모습들이기는 하나 ‘평화의 이름을 도용하여/ 역사의 먼 지평을 더럽히는/ 음흉한 시선

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상을 세워 기념할 만한 인간이라면 무조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대해 일갈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동상으로 세워진 정치적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인류 발전에 기여한 것보다 해악을 끼친 게 더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사후에 동상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동상이란 시대와 역사의 산물입니다. 시대의 평가가 달라지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동상처럼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되거나, 러시아의 레닌 동상처럼 포클레인으로 끌어내려지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물론 북한의 김일성 동상도 오도된 이념의 결과물로 역사의 전환점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시인은 그러한 동상에 대해 '비둘기의 똥 세례를 받으면서도/ 후안무치(厚顔無恥)/ 그냥 저 높이에 서서 버티겠단다'라고 말함으로써 동상도 한낱 물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박복수의 「보행」은 인생은 마라톤 경주(競走)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찰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깊어진 보따리 따위/ 한발 한발 다 버리며/ 걷고 또 걸으면/ 안팎의 찌꺼기/ 소금되어 떠나고/ 시원한 바람소리 들리니/ 나는 오늘도 걷는다'에서 이제 무거운 인생의 보따리(아마 우리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채워도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보따리이겠지요)를 다 버리고 시원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막무가내로 뛰거나 달려왔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보듯이 인생이라는 길은 트랙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트랙을 달리는 육상선수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나토너는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

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천천히 걷는 보행자이거나 산책하는 산책자입니다. 인생이 마라톤 경주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경쟁해야 합니다. 경주란 일정한 거리를 정하고 달려 빠름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주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곧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길을 어떻게 자기만의 절대적 길로 만들어서 고요히 성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배정웅의 「데드 마스크 -히바로 인디언의 목」은 인간의 죽음을 성찰하게 합니다. 이 시는 남미 에쿠아돌에서 인디언의 목이 서양인들의 애호품이 된 슬픈 역사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길 속에 나무 하나 오래 가두면/ 향내 나는 침향목이 되었다/ 수심 깊은 물길 속에서 것처럼/ 여느 사람의 머리가/ 관광 상품이 된 적 있었다/ 멀고 먼 남쪽나라 어느 나라에서는/ (중략) 오, 나의 또 다른 데드 마스크/ 그 언제든가 내 머리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머리를 그 인디언의 머리로 인식하는 내면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동양인 이민자의 삶에서 오는 고통의 풍경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인들이 중심이 된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찌면 그 인디언의 사후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의 죽음에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주검 또한 자연화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 나타난 히바로 인디언은 그 존엄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검마저 상품화되는 인간의 비극성을 들여다보면서 시인은 비록 이민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송석중의 「연어」 또한 이민자의 삶에서 오는 고통의 풍경을 드러낸 시입니다. 아내가 차린 저녁상에 올라온 연어구이를 보고 시인은 ‘히! 내가 아는 놈 아닌가/ 나는 곧 한눈에 동향임을 알아보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연어를 통해 그리운 고향마을을 떠올립니다. ‘내 고향/ 강원도 면주군 옥산면 대화실山/ 그 아랫마을 남대천에 살던 바로 이웃/ 너는 왜 언제 태평양을 건너왔는지’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연어는 곧 시인 자신입니다. 시인은 어쩌면 그동안 이민지 미국 땅에서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올라온 연어를 통해 문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칩니다. 그 그리움을 ‘남의 땅에서 이렇게 무작정 해후하니/ 가슴 떨려 할 말 없고/ 젓가락 든 손 후들거려 멍청하게/ 주르륵 비린내만 풍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연어구이 한 토막이 시인에게 그리운 고향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시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한 국면에서도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과 깊게 맞닥뜨리게 해줍니다.

이성열의 「뒤꿈치」는 우리가 어떠한 유형의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에서 은유물은 신발입니다. ‘신을 사서 신으면 언제나/ 다른 부분은 멀쩡하고/ 오직 뒤꿈치만 닳아버린다/ 뒤꿈치만 온 힘으로 일하고/ 구두 전체를 도맡아 감당하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발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은유물입니다. 그런데 신발은 이 시에 나타난 것처럼 뒤꿈치가 먼저 닳아버립니다. 시인은 그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발의 뒤꿈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뒤꿈치가 지닌 희생의 의미 때문입니다. 희생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뒤꿈치가 없는 신발이 없듯이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뒤꿈치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혼자 메고

갈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 말라 너는 세상의 주인이니/ 시간이 나면 수선소에 가서/ 징이나 하나 박아 넣어 주리라'

조영철의 「핑계」 또 한 죽음을 성찰하는 시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 내가 죽을 거라는 통지서,/ 앞으로 살 날이 딱 3일 남았다면'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가정하고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깊게 고뇌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시인은 '마음이야 풀면 길어지고/ 당기면 짧아지는 것/ 끝까지 제가 죽는 날을 모르면/ 그 또한 별 것 아닌 일/ 이런 저런 쓰라림/ 쥐구멍에 처박으려 기 쓰지 말고/ 차라리 한 짐씩 지고 떠나면 될 일'이라며 죽음에 대해 꺾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삶의 또 다른 얼굴이므로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 '네 것 내 것 가리지 말고/ 무심결에 뿌려 쌓인 먼지나 닦아 놓아/ 다시 올지 모를 길이나 밝혀두어야겠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삶을 성찰한다는 것은 내일의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무심결에 뿌려 쌓인 먼지'입니다. 아마 그 '먼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짙어지게 되는 죄업 등이 아닐까요. '다시 올지 모를 길' 그 윤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에서 무심코 뿌려놓은 먼지를 닦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석봉의 「때밀이 아버지」는 우리를 유년의 어느 한 시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시는 그 시점 속에서 다시 젊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인은 '이른 새벽/ 공중목욕탕 드나들던 열 서너 살/ 아버지는/ 때도 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앞부분만 쳐다보던 나를 끌어들/ 때밀이 하셨는데/ 어찌나 아프게 미는지/ 온몸이 별절게 쓰리고 아팠다'고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오늘 '내 몸을 맡기고 때밀이를 하면서/ (중략) 아버지로부터

깊고 지극한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아이들에게 그만한 사랑을 했는지 /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이 또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는 이렇게 사소한 일상에서 위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 발견된 시를 통해 우리는 부정보다는 긍정을 슬픔보다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성찰의 소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돋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를 그 돋보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돋보기로 들여다본 삶의 풍경을 시의 화폭에 담아 보는 일이야말로 큰 기쁨입니다.

## 미주문학(08년 봄호)의 산문

임현영

(문학평론가)

### 1. 소설 / 시물레이션의 미학

#### 1) 성취된 유토피아에서의 문학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무엇일까? 장 보드리야르는 기행문 『아메리카』에서 미국을 “성취된 유토피아”라고 지칭하면서 이내 누구를 위한 유토피아냐고 반문한다. 바로 이 강대국이 지닌 성취도와 그 허상을 동시에 지적한 대목이다. 미국은 좋든 싫든 세계의 표준치를 제공하는 21세기의 로마다. 이 광활한 대지에는 지구 위의 모든 인종과 자원, 문명과 야만, 미덕과 패덕, 유신론과 무신론, 보수와 진보, 미와 추, 열림과 닫힘이 공존한다. 21세기 문학의 최대의 소재



문학평론가. 중앙대학 국문과 겸임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1967년 『현대문학』 평론으로 등단. 문학평론 주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대표 저서로는 『한국근대문학 사상사』, 『분단시대 문학』, 『민족의 상황과 문학 사상』, 『한국근대 비평사의 쟁점』 등이 있다.

[www.yimpy.pe.kr](http://www.yimpy.pe.kr)



이자 주제요 기교이자 사상이 펄펄 살아 날뛰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공존하는 이 정글의 법칙의 각축장에서 우리 동포문학인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며 쓰고 있을까.

모국에서는 눈을 부릅떠도 볼 수 없는 ‘세계 속의 한민족’의 삶의 정체성이 보이는 곳이 바로 미국이 아닌가. 미주 동포문학의 독자는 비단 미주지역 거주자만이 아니라 모국의 독자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모든 우리 해외동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줬으면 싶다.

미주문학은 모국 문단의 축소판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민족 8천만의 영혼의 안식처이자 미학적 향도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2) 백남규 「깡통을 줍는 여자」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모양이 나름대로 다 다르다”고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의 첫 대목에서 말한다. 유복한 집안은 모든 걸 두루 갖췄기에 비슷하나 불행은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죽음, 재난과 사고, 실직과 가난, 불화와 성격 차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세대간 가치관의 갈등 등 불교에서 지칭하는 백팔번뇌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주 동포 사회 속에서 가족 갈등의 요인은 모국에서보다 더 격렬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부 사이에 못지않게 부모와 자식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백남규의 「깡통을 줍는 여자」는 비단 미국에서만 아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신구세대의 가치관의 문제를 제기해준다.

경자는 서른아홉 살 때 남편을 저승으로 떠나보낸 후 서울 “아현시

장 한구석에 국밥집”을 차렸으나 “배고픈 걸인에게 공짜로 밥”을 퍼 주다가 이내 “버스 종점 근처에서 붕어빵 장사”로 내몰렸다. 궁핍으로 결핵을 앓던 어린 “딸을 화장”한 뒤 그녀는 “돈이 없어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병원에서 쫓겨나지도 않는다”는 미국으로 건너가 자식들을 키워 살 만하게 되었건만 강통을 비롯한 폐품을 수집하는 극성을 버리지 못한다. 아들 동혁은 페인트사업, 며느리 신영은 은행원으로 미국사회에서도 그러저럭 살 만해 진 터라 어미의 이런 모양새가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여기에다 더 불을 지핀 건 “아담한 집을 구입”한 뒤였다. “뒤뜰의 파란 잔디가 채소밭”으로 바뀐 건 억척어멈(세상의 어머니는 다 억척 어머니 아닌가) 경자의 “꽃고추며 상추” 재배 의욕 탓이었는데 “아들과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2단계까지의 불화과정을 간신히 넘겨오던 어머니와 아들 내외의 갈등이 임계점(臨界點)에 이르도록 만든 건 경자가 아들에게 “이제 너도 살 만하니” 일임해 오던 자신의 소셜연금을 돌려달라는 데서였다. “내가 손주들 생일에 옷가지나 사주려고 해도 수중에 돈이 없으니 불편해서 그런다”는 어미의 하소연에 아들은 서슴없이 “그래요, 그럼 돌려드릴 테니 나가서 사세요.”라고 응대한다.

소설구조로 보면 여기까지가 상황설정에 속한다. 이 갈등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마무리 짓는가는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따라 달라진다. 출가한 딸을 등장시켜 어머니의 역성을 듣게 한다든가, 한국에서 중학교 교사를 지내다가 은퇴 후 미국 딸네 집엘 들렀다가 아예 눌러앉아버린 이웃 김 노인을 등장시켜 인정의 소멸을 비분강개하며 경자의 처지를 두둔하는 건 한국적 상식에 속하며 재미 동포 작가들 대부분이 지닌 최소한의 전통적 윤리의식의 귀결일 것이다. 작가는 이 두 노인이 결국은 노인가파트로 나가 살 것임을 시사하며 소설을 맺는다.

무대가 미국인 점 말고는 오늘의 한국적 정황과 다를 바 없는 친구 세대의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소설적 긴장미를 더 필요로 한다.

### 3) 연구호 「소록도 길」

이 작품은 의사 출신인 작가가 수기형식의 일인칭 사소설로 엮은 기독교 신앙소설이다. 경기도 안성군청 축산계원(6.25 때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함)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 강석호는 안성농고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안성군청 축산계에 근무하며 결혼, 아들 셋을 얻는다. 뉴욕의 큰아들은 “롱 아일랜드에 큰 저택을 구입”했고, 둘째아들은 로스앤젤레스 “현지 부지사장으로 임명이었으며 스페인 계통의 백인 여성과 결혼”하는 성공담을 이뤘으나 막내 강홍조는 열여섯 살인 고교 2학년 때 나병에 걸려 소록도로 보내는 아픔을 겪는다. “1996년 4월 15일 이후 피눈물을 흘리며 42회나 소록도”를 찾아다녔던 ‘나’의 후반생을 작가는 담담하게 풀어낸다.

2003년 봄 41회째 소록도를 다녀온 ‘나’는 미국에서 보내온 아들의 비행기 표를 받고 출발하려던 날 아침 중풍으로 8개월간 고생, 회복 후 42회째 소록도를 방문하고는 두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생활에 익숙해질 즈음 ‘나’는 막내아들의 아픔을 잊지 못해 “내 아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나요? 아니면 내 아들의 죄요?”라고 목사에게 따졌고, 목사는 “단지 창조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라는 대답에 “무슨 소리요? 빌어먹을!”이라고 분노, 곧 영주권이 나올 즈음인 2006년 7월 귀국을 감행, 43번째 소록도를 방문한다.

눈치 빠른 독자는 이 소설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를 이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신론자라면 강홍조를 더욱 악화된 나환자로 만

들어 아버지로 하여금 인생무상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의학적 치유 효과로 낙관적인 끝맺음도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독실한 신앙인이 라면 “주님,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소서” 간원하여 그들과 함께 지 내다가 진짜 문둥이가 되어 3년 만에 800명의 신자를 만들었다는 벨 지움 신부 다미엔의 거룩한 행적을 모방토록 결론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작가는 『벤허』식 결말을 취한다. ‘나’를 맞은 소록도 병원은 강홍조가 음성 나환자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는 신앙 간증식 끝맺 음이다. 아마 미주동포들의 압도적인 다수의 인생관의 반영일 것임을 알면서도 작가혼의 치열성이 아쉽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 4) 조정희 「시인의 봄날」

“그(남편)는 엘에이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있었고, “나(아내) 역시 클 렌데일 어드벤처스트병원” 간호사로, “건물 관리인을 두기에는 너무 나 작은 규모의 아파트”지만 세를 놓은 건물도 가진 여유 있는 부부라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고 “아파트 매니저와 전업주부”로 지내는 한편 ‘나’는 병원 근무를 계속하는 이 집안은 미국이나 한국 어디서나 바라마지 않는 행복한 가정의 한 전형이다. 그런데 아파트 세를 받으러 갔던 남편이 피살, 30대 중반에 ‘나’는 혼자가 된다.

“남편은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 그것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아파트 건물은 그 즉시 팔아버렸다. 거기서 나온 돈과 남편의 생명 보험 액수는 내가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만 살아도 될 만한 액수였다. 게다가 계속 벌어드리는 나의 수입은 남편 없이 싱글로 사는 내 삶에 돈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탬이 되었다.”

‘나’ (스잔 리)는 어떻게 후반생을 살 것인가가 이 소설의 열쇠로 작가의 인생관을 반영한다. 산업사회의 물신화(物神化) 풍조를 비판하고

싶다면 어떤 플레이보이 사기꾼에 걸려들어 온 재산이 털리도록 하는 게 미국식 통속 드라마의 한 전개법이기도 하다. 멋진 새 남자를 잘 만나 잘 살았다면 아예 소설이 될 가치도 없을 테고(소설은 행복보다 불행의 산물), 조용히 사회봉사활동으로 자신의 재능을 살려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결말이라면 고리타분하지만 청아한 고전적 풍미가 날 것이다. 미망인 신분이 되자 옛 애인이 나타나 새로운 사랑을 찾도록 만들거나, 여러 남성을 섭렵하는 젖소부인으로 에로티시즘을 장식하는 건 한국적 불륜소설의 유형이다.

이 작가는 위의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재미동포 소설 속의 ‘열녀상’으로 ‘나’를 부각시켜준다. 10년간 ‘나’는 12월 30일이면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곤 하는데, 묘지에서 다른 한 미망인인 시인의 아내 자넷 박을 만난다. 스잔의 남편과는 달리 자넷의 남편인 시인은 생전에 “가장 구실을 못하고 돈 한푼 되지도 않는 시 나부랭이나 쓰자고 머리 싸매고 들어앉아” 지냈던 “무능력한 좀팽이”였으나 정작 자넷은 시인이 암으로 고통스러워졌을 때 애정이 깊어졌고 죽고 나자 시인의 아내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공교롭게도 죽은 남편들의 생년월일이 같은 3월 21일. 두 여인은 그날, 바로 “봄이 시작되는 3월 21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라며 헤어진다는 결말은 다분히 감상적이다.

서로 다른 두 부부의 삶을 시로 승화시켜 화해로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의도다.

## 5) 최정열 「극무의 초인」

천진하(天真河), 바로 극무의 초인을 꿈꾸는 문학인. 초인이란 니체를 비롯한 많은 전설과 일화가 스며있는 개념이겠지만 극무란 무엇일

까? 극무(極無)? 다 읽어도 마땅하게 이 술어의 개념을 추려내기 어렵다.

천진하는 방랑한다. 극무의 초인을 추구하며, 자신이 극무의 초인이 되고자, 어떤 극무의 초인을 찾아서, 극무의 초인은 없다는 걸 증명하고자, 없는 걸 알면서도 창출해 내고자, 창출도 불가능하지만 추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듯이.

이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기도 한 천진하의 글이나 행위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 같기도 하고, 장자(莊子)의 세계에 함몰된 것처럼도 느껴지고, 이육사의 시 「광야」의 분위기도 풍긴다.

진하가 썼다고 인용한 글들은 웅휘한 상상력과 근육질의 힘과 정교한 분석력을 두루 지닌 도가(道家)적 시의 경지를 지니고 있다. 그를 알아본 교사인 안희정은 어떤 인간상인지 정체는 모호하지만 둘의 대화는 오묘한 전설이나 선문답처럼 물질문명에 찌든 현대인의 비좁은 영혼에 일갈한다.

그러나 대중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를 위해서는 더 정교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서사구조가 선명하면서도 무대나 시기가 잡히지는 않는다. 통속적인 독자라면 두 남녀가 열애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작가는 그따위 육욕은 티끌처럼 탈피하는 고고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극무’를 추구하는 초인이 왜 그렇게 방랑하는가에 대한 필연성을 독자들은 궁금해 할 것인데, 작가는 그 걸 보여주지 않는다. 긴 장편의 한 대목을 발췌한 듯한 느낌이다.

## 6)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오늘의 미주동포 소설이 지닌 최대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뮬레이션(Simulation) 미학의 결여이다. 장 보드리야르가 열렬하게 주

장했던 시뮬레이션이란 플라톤이 처음 제시했던 ‘가짜 복사물’에서 ‘가상 현실(假想現實)’로 승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의 핵심이다.

이번 호에서 살펴본 소설들이 지닌 공통성은 너무나 실록적인 요소에 갇혀서 상상력이나 사건의 의외성(예상 외의 결말)과 환상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주 동포 중산층이 지닌 삶의 양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복사해낸 사건이란 뜻이다. 이 사건을 시뮬레이션 시켜 사건을 유추해 나가는 건 작가의 세계관이자 상상력이다. 필자가 소설을 평하면서 결말을 이런저런 것으로 끝낼 수 있다고 제시한 ‘가상 현실’이 곧 시뮬레이션에 해당한다. 자신이 살아온 만큼만 쓰는 게 아니라 체험보다 더 깊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미학적 기교가 곧 시뮬레이션이다. 자신의 이야기만 쓰면 작가는 평생 장편소설 한 권밖에 못 쓰지만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키면 수 백 편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흥미진진해진다.

## 2. 수필 / 다시 산문의 본령을 생각하며

### 1) 김기림의 수필론

수필에 대한 편견과 경시는 이미 오래다. 1930년대부터 이 문제는 불거져 나와 양식 있는 문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수필문학의 구세주처럼 자주 인용하고 있는 김기림의 「문단 시평」 중 서두인 〈수필을 위하여〉(《신동아》 1933.9)는 “잡문으로 천박한 저널리즘의 부산물”이라는 수필에 대한 편견을 향하여 “아무 것도 주지 못하는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함부로 씌여진 느낌을 주는 한 편

의 수필은 인생에 대하여 문명에 대하여 어떻게 많은 것을 말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유명한 구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향기 높은 유머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위트와 대리석같이 찬 이성과 아름다운 논리와 문명과 인생에 대한 찌르는 듯한 아이러니와 파라독스와 그러한 것들이 짜내는 수필의 독특한 맛은 이 시대의 문학의 미지의 처녀지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있어질 수필은 이 위에 다분의 근대성을 섭취한 가장 시대적인 예술이 되지나 않을까?

— 김기림 〈수필을 위하여〉

이 대목은 김기림이 광복 후 수필집 『바다와 육체』(평범사, 1948)의 「머리말」 후반부에다 그대로 옮겨 실어 널리 회자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이 「머리말」에서 “문학의 정의야 어찌 되었던 간에 제2급 3급 이하의 어린이 장난같은 소설이나 시 째는 더러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나는 몽테뉴의 『명상록』, 파스칼의 『팡세』, 아랑의 『단상』, 『노자』, 『장자』, 『한비자』 등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유명한 발언을 했는데, 이걸 수필문학의 개념과 범위가 얼마나 광망한가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간 수필문학을 낙관론으로 보며 옹호한 모든 글들은 예외 없이 기존 수필작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잃어버린 본령으로서의 수필의 참 모습 되찾기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은 주시할 만하다.

## 2) 생활과 수필

수필문학은 가장 생활적이다. 그러기에 하루하루의 일기가 다 수필



이기도 하다.

이정아의 「명창들의 절창」은 국내 유명 문인들의 미주지역 방문 후 일담이며, 이초혜의 「친구」는 제목 그대로 모국의 오랜 두 벗의 방미 동행 여행담이다. 바로 일상성의 반영 수필이다.

이런 일상성 속에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시선을 돌린 글이 강정실의 「중년 이혼」이나 김주원의 「컴퓨터 세대를 바라보며」이다.

앞의 글은 한국과 재미동포가 함께 겪는 사회현상을 한 친구의 구체적인 예를 통계수치까지 들어가며 꼼꼼이 따진 글이고, 뒤의 글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이 도리어 인간을 황폐화시켜 자살을 성행토록 한 다며 이 건조해지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서투르게, 어눌하게, 바보처럼 살고 싶다”고 컴맹이면 어떠랴 라고 역설한다.

이상옥의 「필립스 콜렉션」은 사회적인 쟁점을 예술적 지원이란 시각으로 접근한다. 화가 Milton Avery의 전시회를 둘러보며 무명 시절 그의 작품을 고가로 구매하여 인정받도록 도와준 음악인 루이 카프만의 선행을 거론하며 재미 동포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희구하는 이 글은 메세나 운동의 권유 역할을 해준다.

일상적인 삶을 서정화시킨 글이 김우영의 「모가지가 길어서 행복한 짐승이여!」로 이 글은 시카고 북부 노스 팍 빌리지 센터의 노인 아파트 단지에서 본 어미 사슴과 새끼 두 마리를 두고 펼치는 서정적인 환상곡이다. 노천명 시인의 뿔 달린 수컷을 읊은 시를 인용, 비판하면서 이 작가는 “뿔 없는 어미 사슴의 새끼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오히려 더 아름답게 돋보였다”는 일갈은 예리한 수필이 시인의 경지를 넘어 설 수 있음을 보여준 멋진 대목이다.

삶의 반영 중 추억의 회로는 수필문학의 보물창고이다.

정순옥의 「사랑의 종소리」와 정찬열의 「술 익는 마을」은 바로 추억

의 축적물이 낳은 작품이다.

전자는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들어온 종소리 일대기이다.

정찬열의 「술 익는 마을」은 모국 고향에서 백중 무렵 술 조사를 당했을 때의 「딸그만네집」 할머니 회고담이다. 농사철이면 집집마다 막걸리를 담궈 마셨는데 그 단속원이 마을에 나타나면 술 단지를 뒷산이나 대밭에 숨겨야 했다. 들키면 벌금이었다. 딸을 많이 낳아 그만 낳으라고 지은 이름에서 유래한 딸그만네 할머니도 “술동이를 이고 바쁜 걸음으로 숨기러 가던 참”에 골목에서 “술 감독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순간, 할머니는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손을 놓아버렸다. 술동이는 박살이 나고, 술 건더기가 골목길에 질펀하게 쏟아졌다. 온 골목에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가 퍼질러 앉아 목 놓아 울어대자 젊은 단속원은 “안 본 걸로 할 테니 그만 그치세요.”라고 달래자, 재차 확인했다는 대목까지는 흔히 들어본 이야기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으짖거시요.” 다그쳐 온 동네를 무사하게 했다는 추가 장면이 묘미를 더한다.

최미자의 「막내고모」는 네 고모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고모에 얹힌 회고담인데, 주인공에 못지 않게 고생스럽게 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세 고모의 한 많은 인생살이가 한국 여인의 축소판처럼 다가선다.

최순봉의 「환경의 혼란」은 “백만 달러가 넘는 건물” 하나를 갖게 된 작가가 이를 관리하면서 겪게 된 난관을 통하여 미주동포 사회의 전반적인 불신풍조와 교민 2세가 지닌 1세에 대한 비판의식까지 다룬 문제작이다.

지붕에서 물이 새서 수리를 맡겼던 “순복음교회의 기독교 신자”인 동포가 도망을 가버리는 등 동포들이 오히려 배신의 화근을 초래하는

암담함 앞에서 “아들은 일세들의 삶의 광장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에서는 누구나 서글퍼질 것이다.

그렇다고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음은 에어컨 케이스에 등지를 튼 비둘기를 잡아 창공으로 날려주는 장면이 상징화시켜 준다.

내가 속임을 받았다는 생각이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속인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죄악은 아니지만 미워하는 것은 죄악이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비둘기의 날개쪽지를 내가 움켜잡고 있을 때는 비둘기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둘기를 놓아주면서 비둘기를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가 나의 월권이였다. 아니 모두가 나의 권리였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결론은 나의 권리였다.

— 최순봉 「환경의 혼란」

재미동포 1-2세대의 가치관의 갈등을 체험을 통해 적나라하게 다룬 글이다. 아버지 세대에 대한 불신이 전승되면 결국 2세에 이르러 우리 동포들은 더더욱 서로를 못 믿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작가는 “환경은 언제나 참된 스승과, 공멸을 꾀하는 함정이 공존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우둔한 사람에게는 무덤”이 된다고 경고한다.